

● 그리스도성체성혈 대축일

여러분들은 성체를 모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습니까?

초등학생들에서 물었습니다.

"성체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나요?"

아이들은 순수하지요.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네! 믿습니다!"

저도 100%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밀떡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할까?' 신기해하며 좀처럼 믿기 어려워합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지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하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살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하고 따지고 들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둬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의 살과 피가 사람들이 꼭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임을 말씀하십니다. 미사를 통해서 축성된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는 사랑의 극치, 말할 수 없는 하느님의 큰 은총이지요. 바로 이 사랑이 2000년 동안 지속돼온 그리스도교 역사입니다.

이탈리아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오르비에또'라는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성체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지요. 1265년 독일인 프라하의 베드로 신부는 로마로 순례를 가던 중에 불세나에 목계 댔습니다. 신심이 깊었지만 자신이 봉헌하고 축성하는 밀떡과 포도주가 과연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는지 의심하면서 베드로 사제는 성체를 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놀랍게도 성체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그 피는 성체포와 제대포로 계속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베드로 신부는 몹시 당황했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어서 미사를 중단하고 마침 근처에 머물고 계신 교황 우르바노 4세께 이 일을 보고합니다. 사실이 밝혀지고 그 성체와 피 묻은 성체포는 오르비에또대성당 안에 모셔졌으며 그 이후 계속해서 장엄하게 보관돼 전시되고 있습니다.

성체 기적을 몸소 체험한 교황 우르바노 4세는 교서를 반포, 성체축일을 제정하고 그 곳에 대성당을 짓고, 성체를 공경하는 기도문을 짓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데 아퀴노의 '성체찬미가'입니다. 이것이 '없디어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리러 뵈을수록 전혀 알 길 없삽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로 시작되는 '성체찬미가'가 만들어진 배경이지요. 그리고 이때부터 '성체 성혈 대축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로 지내는 오늘이 바로 그 축일입니다.

우리는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또 성체를 모심으로써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통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사람들은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을 깊이 체험하는 한 주간되기를 바랍니다.

이기양 신부(서울대교구 오금동본당 주임)

원하는 것을 낼 수 있습니다

씨의 생명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전문가라면 겉의 모양을 보고도 그것이

무슨 씨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씨가

건강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좋은 종자의 씨를

심었지만 실제 싹이 나서 자랐을 때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씨가 있습니다.

품종이 좋다 해서 씨를 심었지만

실제 농사를 해 보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씨의 장래를 겉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없듯이

영혼이라는 것도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는

그 영혼의 장래를 알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쫓아간다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그러나 세는 알 수 있습니다

남은 모습을 보고 씨를 판단할지라도

씨는 자기 속에 있는 생명에 대해

●공소일반공지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드레아 : 매월 첫주일

성모 성월 기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중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

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요

그 이름은 “거룩한 분”이시로다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당신 팔의 큰 힘을 펼쳐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중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조상들에게 언약하신바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친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친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 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오늘 미사후 사목회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온타리오 5개 본당 친선 골프대회를 해밀튼 본당이 주최합니다. 공소 교우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일시 : 6월 17일 오후 1시 Shotgun
장소 : Highland Golf Club
참가비 : \$70(식사 및 기념품 포함)
문의 : 윤명원 행사부장 (h) 519-623-2884

● 5월 구역모임안내

▶2구역: 31일(토) 저녁 6시 교육관

● 관리부에서 일립니다.

교육관 관리를 구역별로 한달씩 돌아가며 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에는 1구역이 하고 있으니 각 구역장님들은 이를 구역모임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사용은 관리부에 2주전에 예약하시고 교육관 열쇠는 사용 당일 관리부에 오셔서 사용대장에 서명,인수하시고 반납은 다음 주일 날 성당에서 관리부에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 후에 정리정돈,소등, 그리고 문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고정적으로 이용할 단체는 사전 예약바랍니다 *
▶교육관에 필요한 비품과 현금을 기부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1차 마감을 5월 31일로 하오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바라오며 공소 인터넷 클럽 또는 관리부로 연락바랍니다
▶문의: 이명희 관리부장
(B)519 894 3533 / H) 896 9628/ C) 228 338 0679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 된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칩시다.

● 주간 전례

▶5 월 27일(화) 저녁 8시, 연중 제 8주간화요일

▶5 월 29일(목) 낮12시, 연중 제 8주간목요일
▶5 월 30일(금) 저녁 8시, 성모의 밤

●성모의 밤 행사

5월 30일 성모동산에서 저녁미사와 함께

●젊은이 선택 주말(CHOICE)

일시 : 2008년 6월 6일(금) 저녁 7:00
~6월 8일(일) 저녁 6:00
안내 : 한맘성당 (416)447-4078
CONTACT : torontochoice@gmail.com

●은혜의 밤

피정날짜: 6월 11일-13일(수-목:오후 7시-10시)
은혜의 밤: 6월 14일(토)
강사 : 정치우(안드레아) 회장
장소 : 예수 성심 천주교회, 신청비 : \$20
문의 : 허길문(알로이시오)905-279-3719

짧은 부속가

21.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22.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23.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24. 전지전능 주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2008-21

2008. 5. 25.

성체 성혈 대축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금,,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1시30분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건진 성사	2년에 일회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 사 전례

해 설 |박명옥 |차주 해설 이정숙

화 답 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기려라..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162) 성체 성혈 그 신비
봉 헌 (512) 주여 우리는 지금
성 체 (161) 성체를 찬송하세
되 장 (245) 맑은 하늘 오월은

독 서

5 월 25일 김직현 김인자
6 월 1일 노동원 노성은
6 월 8일 박용대 박명옥

봉 헌

5 월 25일 서원일 서소영
6 월 1일 김직현 김인자
6 월 81일 노동원 노성은

복 사

5 월 18일 수빈 경은
5 월 25일 원영 규환

2008 년 5월 18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681.00
교무금 :	\$ 20.00
Total :	<u>\$ 701.00</u>

● 주간 전례

▶5 월 27일(화) 저녁 8시, 연중 제 8주간화요일